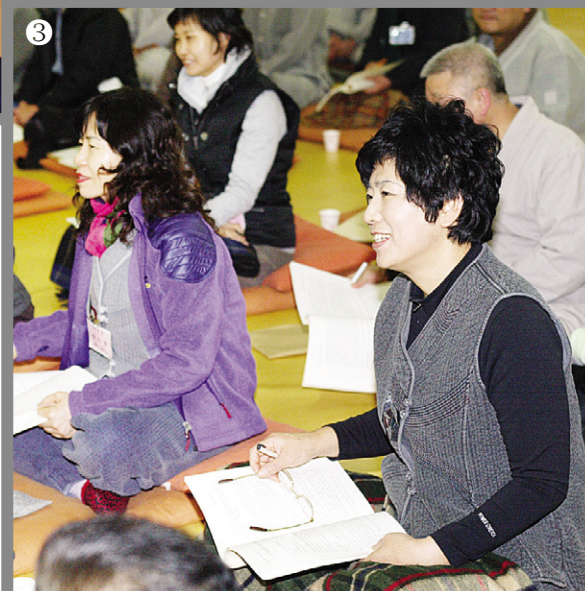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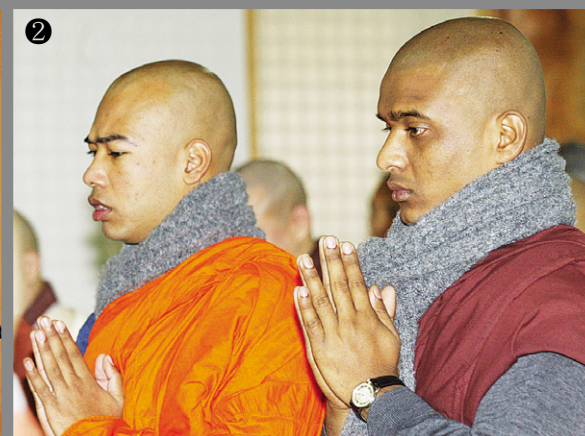


도대체 무엇이 본분사인가?



1 백양사 야단법석 입제식에서 법어를 내리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2 백양사로 유학온 인도 화인 스님들. 3 법문을 경청하는 재가자들. 4 야단법석에서 법문을 듣는 스님들. 5 백양사 야단법석에서 삼귀례하는 사부대중. 오른쪽 두번째부터 항봉 스님, 도법 스님, 고우 스님, 수산 스님, 시몽 스님.



“모든 부처 진수를 알려 하는가? 먼저 제 마음과 그 몸을 보라. 조주 늙은이의 ‘일곱 근 적삼(七斤)’ 바람을 머금고 또 달을 움켜잡는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도 차나니, 그 공덕 천후에 끊어지지 않으리라.”

11월 21일 오후 2시 백양사 교육관에서 열린 야단법석 입제식에서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제 법어를 내렸다. 수산 스님은 “만일 번뇌 망상의 가시밭길을 뚫고 지나가서 불조의 속박마저 끊어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경지를 얻게 되면, 하늘의 신들마저 꽃을 바칠 길이 없고 외도가 몰래 엿볼 틈마저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본분사인가를 끊임없이 참구하라”고 당부했다.

‘깨달음의 길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25일까지 7명의 법주들이 12번의 법석을 펼친 이번 야단법석에서는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시몽 스님이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각목 스님(화엄학원 교수)이 ‘초기불교를 통한 깨달음의 길’, 용타 스님(동사십 이사장)이 ‘동사십을 통한 깨달음의 길’,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이 ‘생명 평화 운동과 대승불교 수행론’, 월암 스님(백송사 선원장)이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항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이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각각 설법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

졌다. 법회 동참자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과 새벽 정진을 시작으로 오전, 오후 저녁 강의들을 들은 뒤 예불을 올리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4박5일간의 빠듯한 사중생활을 불평 없이 이어갔다. 무려 3시간씩 12번에 걸쳐 진행된 힐 톨 없는 강의에도 50여 동참자들은 조는 사람 한 명 없이 법문을 경청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도 생활속의 수행과 연관된 진지하고도 간절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초기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 위빠사나에서부터 염불선, 동사십, 간화선, 보살만행으로 이어진 다양한 수행방편에 대한 설법을 들으며 참석자들은 벅찬 환희심을 느끼기도 했다. 몇몇 재가자들은 일부 선원의 느슨해진 수행풍토와 지도점검 체계가 사라진 조계종의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이 이어질 때마다 신심이 떨어진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재가를 막론하고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개인의 수행도 불교중흥도 이뤄질 수 없다는 데 공감함을 표했다.

한국불교 현실 타파 없이 불교 중흥 요원 ‘공감’ 수행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발원 쏟아져 ‘호응’

야단법석 회향날인 25일, 도법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가감 없이 쏟아져 나왔다. 도법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는 이론과 실천, 수행과 일상의 삶, 수행과 깨달음, 지리행과 이타행, 개인 수행과 현실 참여,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 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비중도적인 양극단의 수행론으로 인해 수행자들의 회의와 갈등과 방황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이런 이분법적인 불교관이 연기·중도적으로 통일되는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고 부처행을 하며 팔정도론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수행풍토에 대한 비판은 자칫 선원이나 각처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몽 스님은 “조선이 망한지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조선시대의 기복불교에 머물러 있거나, 중생을 외면하고 너무 편안하게 수

행을 하고 있다”며 “21세기에 적합한 불교로 변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데 야단법석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법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은규 원불교 교무는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자기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활발한 비판임을 느꼈기에 불교계의 어떤 광명을 본 것 같다”면서 “이러한 법석이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참가한 김민정씨는 “생활속에서 정직하게 불법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스님들의 법문이 가슴에 와 닿았다. 삶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단법석을 기획한 항봉 스님은 “불교계의 다양한 지적과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서울 화계사 등에서 개최하는 다음 야단법석을 더욱 알차게 준비해 건전한 수행풍토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불총림 야단법석에 동참한 50여 출·재가 수행자들은 깨달음의 길을 찾는 4박5일간의 용맹정진을 통해 저마다의 고불(古佛)을 만났을 것이다. 하산 하는 길에 백양사(白羊寺)의 네 마리 흰 염소들이 “음메에~ 음메에~” 하며 더욱 우렁찬 울음으로 구도자들을 배웅한다. 글=김성우 기자·사진=백재현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201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모집 '나'군> 신입생 모집 요강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중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 등)	비고
인문	불교학과	21	2	86
	역경학과	21		
	포교사회학과	21		
사회	사회복지학과	21		
	합 계(명)	84	2	

* 수시모집 합격자(본교포함)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 성적 중 학년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 장 소 : 본교 교학처(본관 1층)
- ◇ 교부기간 : 2009. 12. 7(월) ~ 2009. 12. 23(수)
- ◇ 접수기간 : 2009. 12. 18(금) ~ 2009. 12. 23(수) 16:00까지
- * 우편접수는 원서 마감(16:00)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 (2010년 졸업예정자포함)
- 4) 승적증명서 1부 -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 5) 수계증명서 1부
- 6) 주민등록 등본 1부
- 7) 사진(종단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4cm) 5매 제출(2매 원서 / 3매 별도)
- 사미(니)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 8) 총무원장 추천서(타 종단 스님에 한함) 1부
- * 타종단 도제의 소속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으로 한정함.

■ 입학원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 2) 전형료 : 60,000원

■ 전형일정

- ◇ 예비소집 : 2010. 01. 12(화) 12:00
- ◇ 면접 및 인성검사 : 2010. 01. 12(화) 13:00
- ◇ 합격자 발표 : 2010. 01. 21(목) 11:00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 타

-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단, 편입생은 1년을 큰방생활을 할 경우 가능하고,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입생 모집 요강

1)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 연	학점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 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 교 학 과	00명
		23	역 경 학 과	00명
		33	포교사회학과	00명
	43	사회복지학과	00명	
3학년 (학사편입)	14	전학과	00명	

■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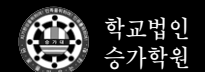
- 일반편입 : 2010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사편입 : 2010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승려로서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외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 기 타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중 사미(니)는 편입학을 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 (031) 980-7713-5